

# '1천 년 미라불상'의 진짜 주인은 누구?

## 중 앙촌 마을 주민들, 네덜란드 소유주에 '원소유권' 제기

지난 2월 불상 속에서 승려 미라가 발견돼 화제를 모았던 일명 '천년 미라불상'을 둘러싸고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중국 푸젠(福建)성 양춘(陽春)의 마을 주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미국 인터넷언론 'Daily Mail'은 11월 20일 "양춘 주민들은 천년 미라불상을 돌려받기 위해 유능한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수개월 간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그들은 불상이 20년 전 도난당한 유물이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이 법적 분쟁은 승려미라가 발견될 당시 네덜란드 소유자는 당초 중국에 불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돌연 2천만 달러(한화 약 233억)를 요구하면서 시작했다. 'Daily Mail'은 "불상 반환을 협상하기 위해 양측은 개인적 협의 과정을 수차례 거쳤으나 변화가 없었다"면서 "중국과 네덜란드 간 정치적 문제로 불거질까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춘 주민들은 '천년 미라불상'이 1995년 12월 마을 사찰에서 사라진 '장공조사(章公祖師)'상 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공(章公) 스님은 송나라 때 양춘에서 앓은 채로 입적한 승려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스님을 기리며 시신 위에 얹은 진흙과 여러 겹의 에나멜 칠, 마지막으로 금칠을

더해 불상을 만들었다. 마을 주민들은 불상이 도난된 1995년 12월 이후에는 도난되지 않은 장신구와 함께 모사품을 제작해 절에 안치했다.

이에 따라 양춘 주민들은 반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SNS상에서도 반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총리 마르크 루터(Mark Rutte)에게 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서한을 직접 보내기도 했다.

### 2월 헝가리 박물관 전시 준비 중

### 1천 년 승려 미라 발견돼 화제

### 도난된 '장공조사상' 의혹 제기

### 반환 미루며 법적 분쟁 불거져

그러나 네덜란드 소유자는 1996년 적법한 절차로 '천년 미라불상'을 구매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천년 미라불상"이 '장공조사상'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내가 불상을 처음 본 것은 양춘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1995년 중순경이며, 전 소유주는 1994년 홍콩에서 이 불상을 구매했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그는 "이 불상이 양춘 주민들이 도난당했다 주장하는 '장공조사상'이란



중국 푸젠(福建)성 양춘(陽春)의 마을 주민들이 지난 2월 네덜란드에서 발견된 '천년 미라불상'을 두고 소유권 분쟁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 1995년 12월 양춘 마을에서 도난당한 '장공조사상(사진 오른쪽)'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의 푸젠(福建)성 양춘(陽春)의 마을 주민들이 지난 2월 네덜란드에서 발견된 '천년 미라불상'을 두고 소유권 분쟁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 1995년 12월 양춘 마을에서 도난당한 '장공조사상(사진 오른쪽)'이라는 주장이다.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기꺼이 돌려줄 것"이라 말해 반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대해 양춘 마을 측 변호인 류왕(Liu Wang)은 "소송에 대비한 증거 수집을 모두 마쳤다. 올해 연말 재판을 통해 반드시 천년 미라불상을 되찾아올 것"이라며 "불상 반환을 위한 유효기간이 내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ily Mail'에 따르면 류왕은 소송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류왕은 "도난당했다는 확실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상항은 우리에게 매우 낙관적"이라며 "12월 경

소송을 위해 네덜란드로 가서 현 소유자를 직접 만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천년 미라불상'은 지난 2월 헝가리 국립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던 중 "안에 무언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네덜란드 메안더르센터는 CT촬영을 통해 불상 내부의 미라를 발견했다. 중국 미술 전문가들은 불상이 960~1279년 송나라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이 불상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자연사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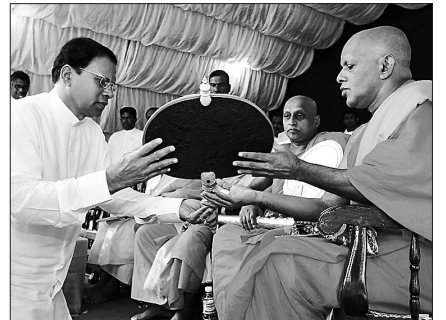
## 스리랑카, 사상 첫 '불교위원회' 신설

### 행정부 산하기구로 조직... 관련법 개정도 추진

인종과 종교 탄압으로 세간의 우려를 사고 있는 스리랑카 정부가 2016년 행정부 산하기구로 '불교위원회(Buddhist Council)'를 조직한다고 밝혔다.

'News.LK'는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Maithripala Sirisena) 스리랑카 대통령의 말을 인용, "스리랑카 정부가 '붓다 교육(Buddha Sasana)'을 천명하며 내년까지 행정부 산하 기구로 '불교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보도했다. 스리랑카 행정부 산하에 '불교위원회'가 신설되면 '불교위원회'는 스리랑카 불교계의 니야카 세로(Nayaka thero) 승단의 조언을 받는다. 조직에 앞서 비하라(Vihara), 데와라감(Dewalagam) 등 관련법 개정도 진행된다.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스리랑카에서 불교가 발전하는 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자원과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교위원회는 국가와 불교의 조화를 구축하고, 니야카 불교 발전의 첨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BC' 방송은 "스리랑카 불교위원회가 자칫 인종과 종교 탄압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인구의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사진 왼쪽) 스리랑카 대통령은 11월 21일 하루말고다 케싸라마(Harumalgoda Keththarama) 사원에서 열린 '고승 축인 법회'에 참석했다.

70%를 차지하는 불교도의 힘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 우려다.

스리랑카는 인구의 70%가 불교도(상할리족)이다. 그 다음으로 힌두교도 13%, 이슬람교도 10%, 기독교도 7% 등이 뒤를 잇고 있지만, 불교도가 주류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도는 막강한 파워를 가졌음에도 소수민족인 힌두교도과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등에 대한 탄압을 그치지 않고 있다.

박아름 기자

## 영 노팅엄에서 '태국 축원법회' 열려

### 태국 스님 5명, 타이 레스토랑서 태국 전통의식 선보

국교회의 나라, 영국 노팅엄에서 일군의 태국 스님들이 타이 레스토랑 개업식에서 축원 법회를 봉행해 시민들 이목을 사로잡았다.

'노팅엄포스트'는 11월 25일 "5명의 태국 스님들이 노팅엄의 랜드마크 '인투빅토리아(intu Victoria) 센터'에 오픈하는 타이 레스토랑 '타이쿤(Thaikhun)'에서 축원법회를 봉행했다"고 보도했다.

전통적인 불교의식으로 진행된 법회서 태국 스님들은 레스토랑 곳곳에 성수를 뿌리며 진언을 염송하고, 대중설법 등 의식을 진행했다. 노란빛 태국 전통 가사를 두른 태국 스님들은 에버딘(Aberdeen)의 부다람(Buddharam) 사원과 에든버러(Edinburgh)의 담마프라탐(Dhammapratip) 사원 2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불교는 태국 문화의 정수"라고 설명한 '타이쿤'의 스파이핀 리(Saipin Lee) 지배인은 "태국에서 '5'라는 숫자는 새로운 것을 축하할 때 선택하는 번호"라며 "태국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태국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불교에도 관심을 갖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불교의식이 처음이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는 니겔 휘틀리(Nigel Wheatley) 인투빅토리아 매니저는 "인투빅토리아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많이



5명의 태국 스님들이 11월 25일 영국 노팅엄의 첫 타이 레스토랑 '타이쿤(Thaikhun)'에서 축원 의식을 봉행했다.

다녀가는 랜드마크"라며 "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노팅엄포스트'에 따르면, '타이쿤'은 태국 이민자 K. 케크락훗(K. Kaewkraikhot) 대표가 '태국 길거리 음식을 영국 레스토랑에서 선보이다'는 모토로 설립했다. 그래서 레스토랑 이름도 타이쿤, 즉 '당신의 태국이다'.

케크락훗 대표는 "태국 전통 음식을 제공하고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노팅엄의 사람들과 태국의 '거리 음식 장면'의 진짜 맛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도시 공간에서 정통 태국 레스토랑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7분 명상'으로 '인종 편견' 극복 가능

### 영서식스대학 연구팀 '사랑의 친절명상' 임상실험 실시

### 백인·흑인 각 71명 대상 관찰

### 무조건적 사랑과 관심 '전제'

### 뇌신경 반응서 긍정 감정 증가

단 7분 명상으로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낮출 수 있다는 명상 기법이 소개돼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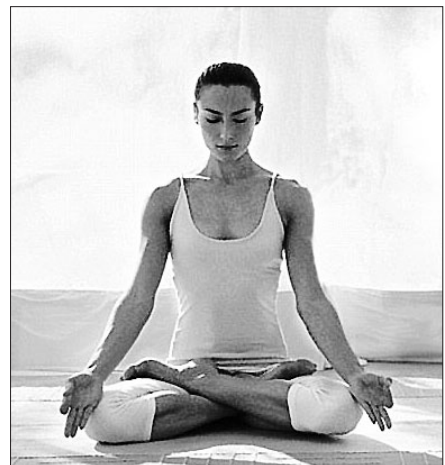
'테크타임즈(Tech Times)'는 11월 19일 "사랑의 친절명상(Loving-Kindness Meditation, 이하 LKM)"을 개발한 영국 서식스(Sussex)대학 연구팀이 실시한 재학생 대상 임상실험 결과, 인종적 편견과 차별이라는 감정을 낮출 수 있던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서식스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LKM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것을 전제. 또 이 과정에서 내면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LKM이 개인의 사고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며 임상실험 의도를 밝힌 알렉산더 스텔(Alexander Stell) 박사는 "명상이 좋은 감정을 갖게 한 단 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기법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에 각기 다른 효과를 보인다"며 "LKM은 인종적 편견과 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에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테크타임즈'에 따르면, 서식스대학 연구팀은 각각 71명으로 구성된 백인 집단과 흑인 집단을 대상으로 나눴다. 첫 번째로 백인에게는 흑인의 인물 사진을, 흑인에게



영국 서식스대학 연구팀이 '사랑의 친절명상(LKM)'을 개발하고, 7분 명상이 인종 편견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는 백인의 인물 사진을 나눠주고 뇌신경 반응을 관찰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임상실험 대상자들이 7분 동안 "당신은 행복하고 건강하다"

는 문구를 떠올리며 사진 속 인물을 보도했다. 이후 두 집단의 뇌신경 반응을 다시 관찰하고 첫 번째 결과와 비교했다.

알렉산더 스텔 박사는 "이번 임상실험 결과를 보면 친절함이란 자신의 의식과 부정적 감정을 극복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인종적 편견이나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랑과 친절'이란 긍정적 감정을 적극 심어줄 수 있는 LKM과 같은 명상 기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테크타임즈'는 "미국의 경우 2008~2012년 백인과 흑인 간 인종 편견을 조사한 결과 48%에서 51%로 증가했다"고 주목하고, "미국 사회에 팽배한 인종 편견을 낮추는 방편으로 LKM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서식스대학 연구팀의 임상실험 관련 보고서는 신경의학계 저널인 'Motivation and Emotion' 71호에 게재된다.

오종욱 편집위원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250W
  - 350W
  - 450W

◇엘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W 1대  
- 소형 미서 5개 1대  
- 탁상형 구조체 마이크 1대  
- 서라운드 마이크 시스템 1대  
- CD기 1대

◇특징 :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I 서울매장 : 서울시 중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I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